

일반

제주 지역 여성청년의 독립 경험에 관한 공간정치적 접근

A Spatio-Political Approach to the Young Women's Experience of Independence in Jeju

김현영*, 김태연**

본 연구는 제주 지역 여성청년의 독립 실천을 다루면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공간위계가 상상되고 경합되는 과정의 역동을 살펴본다. 농촌보다는 도시를, 지방보다는 서울을 열망하는 공간위계 속에서 지역 청년들의 변화하는 생애주기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맥락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을까? 중심부와 주변부 공간의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젠더와 계급이라는 범주는 어떻게 각축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독립과 의존을 대립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대신 여성청년들의 독립 실천을 '과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잔류"로 표상되는 삶의 맥락 속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다양한 실천을 살펴본다. 이들의 독립 실천은 중앙과 지방, 이주와 정주라는 이중의 위계 속에서 현재적 사건으로 긍정되지 못하며 다양한 구조적 곤란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양한 공간전략을 구사하며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낸다. 관계적 장소로서 새롭게 집을 장소화하는 이들의 실천에는 중앙-지방의 공간위계를 새롭게 사유할 가능성이 잠재한다.

주요어: 공간위계, 여성청년, 청년담론, 독립, 장소성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kimhy4626@naver.com).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dara-ty@naver.com).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주변적 공간으로 여겨지는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청년들의 독립 실천을 다루면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공간위계가 상상되고 경합되는 역동을 살펴본다. 농촌보다는 도시를, 지방보다는 서울을 열망하는 공간위계 속에서 지역 청년들의 변화하는 생애주기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맥락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을까? 중심부와 주변부 공간의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제주라는 지역, 계급과 젠더 범주는 어떻게 각축하고 있을까? 우리는 제주 지역 여성청년들의 독립 실천을 ‘과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잔류”¹⁾로 표상되는 삶의 맥락 속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다양한 실천을 살펴본다.

2007년 『88만원 세대』의 출간과 더불어 ‘청년담론’의 부상엔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로 청년들이 ‘정상적’ 성인기로의 이행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에서 ‘n포 세대’에 이르는 신조어들은 청년들이 처한 하릴없는 곤궁을 재현하고, 빠르게 갱신되는 학계의 논의 역시 ‘세대론’에 불을 지폈다(우석훈·박권일, 2007; 김홍중, 2015). 그러나 구조적 변화가 야기한 청년세대의 곤란을 조명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년’ 범주의 과도한 추출이 세대 내 차이를 비가시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실업과 노동시장 불안정화가 가족이라는 완충지대를 갖지 못한 계급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에게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연구나, 전 세계적으로도 청년들의 자산형성이 ‘엄마 아빠 은행(Bank of Mum and Dad)’에 의존하면서 자산의 대물림에 따라 세대 내 계급격차가 심화된다는 분석은 계급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한 청년범주의 한계를 드

1) “잔류”는 2017년 《시사인》 기사에서 수도권 중심의 청년담론이 지방청년들을 지방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 즉 “잔류”하는 것으로 표상되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사용한 표현이다(시사인, 2017.7.4). 3장에서 이 의미의 각축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러낸다(신광영, 2009; 김영미, 2016; 앳킨스·쿠퍼·코닝스, 2021).

청년세대가 맞닥뜨린 가장 커다란 곤란으로 이성애자 중간계급 남성의 관점에서 ‘정상적’ 생애주기의 지연을 재현하는 담론의 보수성 역시 지적되었다. 현실적으로 이미 ‘정상가족’ 규범의 해체 또는 변형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여전히 가족형성이 성취되어야 할 과업으로 제시된 것이다(배은경, 2009; 조은주, 2018).²⁾ 특히 같은 시기 페미니즘 리부트와 맥을 함께하는 여성청년들의 ‘비혼선언’은 가족규범에 대한 저항으로 진지하게 검토되지 못했다. 이렇게 청년담론과 유리된 ‘여성문제’로 남아 있는 현실은 전형적인 젠더 범주의 비가시화로 해석될 수 있다(Haraway 1988; 하딩, 1991; 배은경, 2009, 2015; 한우리, 2017; 조은주, 2018; 정성조, 2019).³⁾

이처럼 보편화하는 청년담론에 대한 비판적 개입들은 ‘성인기 지연’이라는 획일적인 문제설정에서 벗어나 젠더와 계급 같은 청년 내부의 차이가 성인기의 의미 자체를 이질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에 착목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청년들이 처해 있는 젠더/계급위치에 따라 그들의 불안정한 성인됨의 의미가 어떻게 경험되고 재구성되는지에 학술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다(Shilva 2012; 실바, 2020). 특히 결혼이라는 생애사건을 경유하지 않고 ‘독립’을 실행하는 여성청년들의 경험은, ‘다른 가족’으로의 이행을 강요하는 젠더화된 시공간의 경계에서 협상을 감행하고 균열을 내는 실천으로 해석되었다. 송제숙(2016)은 비혼 여성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가족과 사회의 보수적인 성규범과 구속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시도를 뜻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아래에서는 상상되지 않았던 이 현상을 정치사회적 자유

2) 한국사회의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은 애초에 매우 계층화된 형태였음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김영순, 2010). 한국사회의 분절된 노동시장 격차로 인해 ‘표준적 노동 생애’를 유지한 남성 노동자의 비중은 약 40%에 머물고 있다(장경섭·최선영, 2018).

3) 박기남(2011)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당연시되고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도 여전히 이들이 일차적인 돌봄 제공자로 상정되는 모순된 현실로 인해 여성청년들이 친밀성을 유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석한다.

화와 연결해 논의한다.

청년들의 ‘독립’ 실천은 억압적인 사회규범으로부터의 탈피를 시도하면서 도 이 규범의 가장 구체화된 형태인 가족의 계급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의 가족에 대한 의존이 장기화되면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의 생애주기를 조건 짓고 있다(라루, 2003; 조은, 2001; 2004; 2008; 박혜경, 2009; 백진아, 2009). 여성들을 주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중층적 불평등 문제와 더불어 ‘정상가족’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 역시 청년들의 독립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배은경, 2009; 박기남, 2011; 정민우, 2011; 이나영, 2014; 송제숙, 2016), 여성청년 내에서도 계층적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생애주기의 전망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이재경·김보화, 2015). 이 같은 배경에서 여성청년들의 독립 과정이 가족과 협상을 경유하며 젠더와 계급이 첨예하게 경합하는 모순적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정민우·이나영, 2011; 백미록, 2015; 장민지, 2015, 2016; 권민지, 2018; 고병진·김리나, 2018).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이 얽히고설킨 장소로서 여성청년들의 ‘집’에 관한 연구들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들이 성인됨의 의미를 어떻게 새롭게 규정하고 수행하며 어떤 구조적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유용한 입구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대부분이 가족의 계급배경과 생애주기 재구성의 열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청년 독립의 다면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음에도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별다른 단서 없이 서울과 수도권에 한정하고 있다는 공통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편중은 수도권에 청년 인구가 밀집되면서 가시화된 사회 문제에서 기인한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문제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라 불리는 청년세대의 하위 주거트랙의 주거를 통해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로 이주한 많은 지방청년들이 겪는 곤란이기도 하다. 이런 흐름은 청년들의 독립을 계급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살펴보게 만들었다(정민우, 2011; 백미록 2015; 박미선, 2017).

비수도권 지역 청년의 과소재현은 중앙과 지방이라는 공간위계로도 설명

될 수 있다. 청년들에게 어울리는 공간은 ‘도시’로 상징화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라는 통념 속에서 청년들은 도시의 역동성을 좇아 중심부로 이주할 것이라 으레 기대된다. 이는 청년들의 도시 이주가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온 데 반해, 주변부 지역에 머무르거나 되돌아가는 결정이 학술적으로 충분한 관심을 끌지 못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 주변부 지역은 청년기의 삶의 공간으로 부적합하거나 덜 매력적인 곳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이동성(mobility)에 비해 부동성(immobility)이 과소 재현되는 사회과학의 흐름 역시 주변부 청년들의 삶이 다루어지지 않는 데 중요한 작용을 했으리라 짐작된다(Thomassen, 2021; Mærsk et al., 2021).

이 결과 많은 청년이 떠나온 ‘지방’은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남아 있는’ 자들의 장소로 몽뚱그려져 표상된다. 지배적인 서울중심의 청년담론을 문제 삼는 2017년 《시사인》 기획기사는 “지방청년의 문제란 지방의 (열악한) 환경을 뚫고 (선진화된) 서울의 대학 혹은 일자리로 진출할 때 겪는 차별 정도로 축소”되며, “지방에서 현재 살고 있고 살아가기 위한 청년의 고민이 아니라 지방에서 ‘벗어나기’ 위한 청년의 고민”으로 환원되고 있음을 적절히 짚어내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라는 위계적 구도가 공고한 한국의 공간적 맥락에서 지방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 즉 “잔류”하는 것으로 표상되는 경우가 만연하다(시사인, 2017.7.4).

지방청년에 관한 연구는 수도권 위주의 공고한 대학서열체계와 이에 수반된 인정과 낙인을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시하는 상황에 대한 개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엄기호, 2010; 오찬호, 2013). 이 연구들은 ‘지방’, ‘지방대’ 혹은 ‘지잡대’라는 타자화된 담론이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실제 삶이 어떤지를 다룬다. 주형일(2010)이 보여주었듯 지방대학생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혹은 대학 생활에 대한 글을 써보라는 ‘비지시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요구받았을 때 자신을 ‘지방대생’이라고 지칭하거나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를 ‘지방대생’이라고 정체화한 경우에도 타자화 담론에 완전히 포섭되는 대신 수용과 거부가 동시에 일어나며 나름대로 전략을 고안

하고 사용한다. 이는 ‘지방대’란 낙인은 동시에 허구적이지 실재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다른 연구들은 역시 ‘지방대생’ 전체를 뭉뚱그려 재현하는 경향에 반대하여 신자유주의적 공세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 경험과 대응전략을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입체적으로 조명한다(이안나, 2014; 김민선, 2014).

그럼에도 젠더나 계급과 같은 분절선을 가시화하려는 다양한 시도 속에서도 ‘지역’ 범주는 기존의 청년담론과 유리된 채 남아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권수빈, 2020).⁴⁾ 지방청년들의 노동경험을 연구한 양승훈(2021)은 이들의 노동 세계는 산업재해의 이름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름하에 개별사건으로만 등장할 뿐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적 배치와 자신들이 정의하는 생활 세계와 노동 세계, 다양한 경험의 관계망들”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양승훈, 2021: 13~14). 이렇듯 통합되지 않는 지방청년에 관한 논의는 중앙과 지방의 위계에 따라 인식론적 배제를 짐작하게 한다(권수빈, 2021). 이는 지방청년의 삶을 연구할 때 공간적 차원을 더욱 면밀하게 탐구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에 관한 연구는 이 격차가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화·정치적인 것으로 범위가 확장되며 그 간극도 날마다 벌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강준만, 2008, 2015; 이상봉, 2018).

본 연구는 제주 지역 여성청년들의 ‘독립’ 실천을 분석하면서 다음 두 가지 목표를 맞게 하려는 시도이다. 첫째, 닫힌 공간이 아닌 관계적 공간으로 지역을 바라봄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독립을 다양한 스케일(scale)의 중첩된 실천

4) 2017년 사회학자 최종열이 지방대생 6명의 면담을 분석한 「북학왕의 사회학」이라는 논문이 발표 직후 학술지식 플랫폼인 DBpia에서 사회학 분야 논문 이용 상위 1%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수도권 중심의 청년담론에서 말해지지 않은 ‘지방청년’의 서사에 대한 갈증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그의 논지는 청년담론의 중심에 있는 ‘생존주의’라는 에토스(김홍중, 2015)가 지방대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대생은 이와 반대로 ‘가족주의’, ‘성찰적 겸연쩍음’, ‘적당주의 습속’으로 특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장경욱(2020), 권수빈(2020)을 참조.

으로 파악하는 것이다(Freeman 2001; 정현주, 2008; 박경환 2011). 도린 매시(Doreen Massey)는 닐 스미스(Neil Smith)가 로컬연구가 필연적으로 기술적(descriptive)일 수밖에 없다고 비평했음을 언급하면서, 그가 로컬과 구체를 혼동할 뿐 아니라, 스케일의 차이를 구체와 추상의 차이로 착각했다고 비판한다. 매시의 관점에서 로컬연구는 반드시 기술적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광범위한 차원의 이론을 필요로 한다(매시, 2015: 217). 본 연구의 공간적 배경인 제주 지역의 공간 형성과정은 국가적 스케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때문에 국가적 스케일과 로컬 스케일의 연결 고리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공간의 변화는 청년들의 집·장소 구축과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지역연구는 글로벌하고 전국적인 흐름이 지역의 특수한 맥락과 어떻게 만나 접합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조주은, 2004; 양승훈, 2019).

지역 여성청년들의 독립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지역을 동질적인 닫힌 공간으로 바라보는 위험을 넘어서서 내부의 젠더와 계급관계를 비롯한 권력관계를 가시화하고 문제 삼을 수 있게 한다. 특히 독립과 의존을 대립적인 것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여성청년들 스스로가 공간위계를 수용하면서도 나름의 협상을 통해 독립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에 주목한다면 제주라는 지역, 계급, 젠더라는 범주가 참여하게 구성되는 과정으로서 ‘독립’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같은 접근은 지역을 단순히 중앙과의 대립 속에서 문화적 동일성을 지닌 공간으로 사유하는 것을 넘어서 그 내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질적인 삶을 조건 짓는 구조적 문제에 주목하도록 한다.⁵⁾ 이렇게 볼 때, 전형화된 지역의 이미지를 넘어서 내부의 경제격차나 보수적인 젠더규범에 비판적으로

5) 지리적 범위를 가리키는 단위로 지역, 지방은 혼용돼 쓰이지만 ‘지방’은 중립적이기보다 서울 혹은 중앙에 대비되는 낙후된 장소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권수빈, 2020). 본 연구에서는 공간위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지방’을 쓰지만, 지리적 범위를 가리킬 때는 ‘지역’으로 표기한다.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지역/주변부의 관점에서 청년담론이 터해 있는 공간적 경계를 확장한다. 사회적 실천이 언제나 공간적임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에 국한된 청년담론의 한계는 자명하다(매시, 2015). 특히 한국사회에서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청년들의 독립을 조건 짓는 공간적 상상과 실천이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경계에 머물지 않고 이 공간위계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담론의 공간화가 요청된다. 본 연구는 청년담론과 관련하여 청년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차원을, 나아가 중앙과 지역이라는 공간적 위계 구도의 구조적 차원에 착목한다. 본 연구는 지방청년들의 삶을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방청년들이 갖는 차이를 부각함으로써 기존의 담론에 ‘지방’이라는 범주를 ‘더하는’ 문제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라는 범주 자체를 생산하는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토대를 설명하고 이 범주가 경합하는 다양한 해석의 결들을 읽어내야 한다는 관점에 입각한다(주형일, 2010; 권수빈, 2020).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페미니즘 연구에서의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공간으로서 집에 관한 논의를 개괄하고 중심부와 주변부의 위계가 경합하는 인식론적 틀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잔류”로 표상되는 여성청년들의 지방 거주가 어떤 상징적 위계를 통해 해석되는지 살펴본다.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여성청년들의 독립 실천이 이행되는 과정을 검토한다. 특히 이들의 독립 실천이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전략에 주목한다. 5장에서는 이들이 구축해내는 집의 장소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이 잠재한 대안적 공간에 대한 징후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2.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1) ‘집이라고 불리는 장소?’⁶⁾

오랫동안 ‘집’은 학문과 일상적 담론을 가로질러 외부세계로부터 분리된 안식처로 여겨져 왔다. 집은 정체성이 구축되는 견고한 토대로서 고향, 가족, 노스탤지어, 뿌리내림이라는 단어들과 묶음을 이루며 가장 여성화된 장소로 표상되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비평은 집을 “장소의 원형”이자 “궁극적 장소감”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상화하는 것은 남성중심주의적 시각임을 비판하면서 집의 성격과 의미를 구성해 온 다의성에 주목해 왔다(로즈, 2011: 138~155). 이들은 공간을 단순한 지리적 표면으로 인식하는 것을 벗어나 “삶의 주관적 양식과 사회공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사회적 힘의 산물로” 인식하는 인문주의나 급진주의 지리학 전통 아래에서도 일방적으로 집에 부여된 젠더화된 의미는 온당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한다(벨런타인, 2014: 16). 이 관점에서 ‘집’은 단순히 사적인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스케일에 걸쳐 있는 사회적 관계의 복수성으로부터 구축”(매시, 2015: 43)되며 사회관계를 통해 생성되고 이를 재생산하는 장소로 고찰해야 한다. 즉, 여성들의 ‘집’은 객관적인 물리적 표면이나 사회관계가 발생하는 용기(container)로 환원될 수 없으며 젠더, 계급과 지역을 가로지르며 경합하는 공간 실천 속에서 맥락화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서구 산업화의 진전은 임금노동의 세계와 가정을 분할시키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라는 이분법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가정은 노동의

6) 이 절의 제목은 도린 매시의 『공간, 장소, 젠더』 「6장. 집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따왔다. 매시는 ‘시공간압축’이라 묘사되는 지구화의 과정에서 ‘집이라 불리는 장소’(집, 고향, 고국 등)가 공격받는다 고 보는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소’란 언제나 경계를 넘어서 얽혀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에서 분리된 아늑한 장소로 신비화되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가정이 노동의 공간이자 통제와 억압의 공간임을 강조한다. ‘집’이 외부세계로부터 분리된 안전하고 아늑한 장소로 여겨질 수 있었던 까닭은 누군가의 물리적 노동을 통해 위생적이고 깨끗한 공간이 유지되고 음식과 감정적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여성들에게 할당된 이 노동은 ‘사랑의 노동’으로 비가시화되어 왔다(폴브레, 2007; 페데리치, 2013; 달라 코스타, 2017). 일찍이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타(Mariarosa Dalla Costa)는 근대 자본주의가 남성과 여성을 공장과 가정이라는 각기 다른 공간에서 노동하게 하면서 생산과 재생산을 분리한다고 지적했다(Dalla Costa, 1971).

이러한 이분법적 통념은 주택의 물리적 구조에 단순히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에 의해 강화되고 재생산된다(미첼, 2011). 잉글랜드(England, 1991)는 미국 교외의 사례가 젠더관계가 도시공간을 구조화하는 중요한 측면임을 논하면서 양자의 사이가 역사적인 시공간적 흐름에 따라 상호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미국에서 전후 교외화의 진전은 생계부양자 남성과 전업주부 여성이라는 ‘전통적인’ 핵가족 규범을 강화하면서 생산의 장소로서의 도심과 재생산의 공간으로서의 교외를 구획해 왔다. 전근대시기에 가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노동이 남성의 일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긴 했어도 가족에게 필수적인 활동이었던데 반해서 이 같은 공간 분리의 공고화는 여성의 노동을 공적 영역에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과정에 기여했다. 즉, 이성애 핵가족 규범이 공간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공간 자체가 사회관계를 생산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을 이상화하면서 여성을 가정의 영역에 구속하는 ‘가정중심성(domesticity)’은 많은 노동계급 여성에게는 모순적인 것으로 경험되었다. 여성이 ‘가정의 천사’라는 이상은 광범위하게 퍼져가지만 노동계급 여성의 현실과는 괴리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맥도웰, 2010: 136). 현실에서 대다수 여성은 분주하게 가정 안팎의 노동을 수행하면서 생산과 재생산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틸라·스콧, 2008). 오늘날 새로운 지구적 분업

은 감정과 친밀성의 장소로서 집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을 다른 여성들에게 ‘아웃소싱’하면서 초국적 ‘돌봄의 연쇄’ 혹은 ‘생존 회로’를 만들어내고 있다(혹실드, 2013; 파레냐스, 2009; 사센, 2016). 이렇듯 페미니스트 비평은 고정되고 폐쇄적인 것으로 ‘집’을 상상하는 통념이 이 복잡한 관계를 비가시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왔다.

한편 아이리스 영(Iris Young)은 전통적인 페미니스트 비평이 ‘집’에 덧씌워진 젠더화된 의미를 비판하며 집의 관념을 약화시켜왔음을 지적하면서 집이 가진 양가성(ambivalence)에 주목한다. 그는 ‘집’에 누적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집이라는 장소의 개념을 곧장 폐쇄적인 것으로 기각하기를 유보하면서 집이 우리의 반복적인 신체적 습관(bodily habits)의 연장(extension)으로서 경험과 의미가 축적되는 장소임을 강조한다. 영은 고정적이고 배제적인 노스탤지어로서의 ‘집’이 아닌 유동적이고 부분적이며 타자와의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개별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장소로서 집의 의미를 회복할 가능성에 주목한다(Young, 1990). ‘집’이라는 장소는 우리의 실존적 존재의 기반이 되는 의미망이자 권력이 개입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으며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이다(크레스웰, 2013).

이러한 면, 흑인 페미니스트들은 체계적인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곳에서 ‘집’은 저항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억압받는 인종집단으로서 흑인가정이 착취의 장소가 아니라 ‘안식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가내억압을 강조하는 서구 백인 페미니스트 관점이 배제적인 시각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콜린스, 2009). 특히 벨 훅스(bell hooks)는 흑인 여성들이 수행해 온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돌봄노동이 인종주의적 사회의 지배와 억압에 대항하는 정치적 차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의미가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고 논평한다. 그에 따르면 흑인가정은 집 밖에서의 백인 우월주의에 맞서 정치적 연대를 조직하고 저항의 주체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장소였다(hooks, 1990).

비슷한 맥락에서 엘우드(Elwood, 2000) 역시 레즈비언의 집과 공동체는 벨

혹스가 흑인공동체의 집을 인종주의적 사회의 지배와 억압에서 안식처이자 저항의 주체가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장소라고 논한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집은 오랫동안 이성애 핵가족 규범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장소로 여겨져 왔기에 레즈비언들에게 집의 의미는 훨씬 모순적인 의미로 구성된다. 이들의 집은 한편으로 지배적 문화규범과 경합하면서 대항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해방의 장소로서, 비규범적인 형태의 가족을 만들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시화하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집과 공동체가 지배적 문화에서의 괴롭힘과 차별로부터의 피난처가 되는 가능성은 일정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권력에 좌우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렇듯 ‘집’에 대한 페미니즘 독해는 집을 고정된 경계를 갖는 장소로 바라보기를 거부하면서 장소에 개입하는 다양한 사회관계를 읽어내고 이를 저항적 장소로 재해석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렇다면 ‘집’과 유사한 개념적 위치를 공유하는 다른 범주들은 어떨까? 도린 매시는 「집이라고 불리는 장소」라는 글에서 장소나 로컬한 것에 대한 관습적인 사유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공간 압축, 액체성, 유동성과 유목주의라는 다양한 개념어로 표상되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본과 재화가 오가는 추상적 ‘공간’이 아니라 일상의 진정성과 소박함이 느껴지는 ‘장소’를 열망한다. ‘지방’은 중앙/글로벌한 것과의 대립물로서 이런 공간적 은유에서 로컬한 것은 글로벌한 것에 의해 침범당하고 집어삼켜지거나 동질화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방은 도시적 삶에 반대되는 향수의 장소 혹은 정지의 장소로 낭만화되고 본질화된다. 하지만 ‘집이라고 불리는 장소’의 일관성과 안정성의 상실을 호들갑스럽게 떠드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탈식민 세계나 여성의 관점에서 폐쇄되고 고정된 경계를 갖는 장소란 오히려 희박한 경험일 뿐이며, 장소는 언제나 외부의 사회관계와의 복잡한 얽힘 속에서 구성되어 온 것이었다. 장소와 공간, 로컬과 글로벌, 중심과 주변, 정주와 이주, 여성과 남성이라는 오래된 이분법은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Freeman, 2001; 정현주, 2008, 2016; 박경환, 2011, 매시, 2015). 앞으로 살펴볼 여성청년들의 독립 과정은 중앙과 주변의

위계적인 이분법적 구도를 소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가족-집에서 점유하는 위치의 차이를 지각하고 공간의 통일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새롭게 집을 장소화하는 실천은 중앙-지방의 공간위계를 새롭게 사유할 가능성을 잠재한다.

2) '중앙-지방'의 공간위계

한국의 근대화과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역이 분업적으로 산업을 떠맡는 불균등 발전을 축으로 이루어졌다(이상철, 1995). 이 과정에서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해 왔다.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인구증가세를 보이며 도시화를 이룬 메갈로폴리스이자 종주도시의 하나로 변모하였으며(데이비스, 2007: 26; 사센, 2016: 82~90), 2020년 기준 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면서 전례 없는 1극 구조를 형성하였다(통계청, 2020). 더불어 서울 중심의 대학서열위계에 입각한 교육 문제, 일자리 집중과 부동산 상속 문제 등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면서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즉, 한국사회는 국가 전체로 보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왔지만 이 발전은 공간적·사회적 양극화라는 불균등을 대가로 성취된 것이라 할 수 있다(정성훈, 2016). 중요한 것은 이 간극이 경제적 불평등에만 머물지 않고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위계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공간적 양극화"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체화되어 "서울을 선망"하게 하거나 "열패의식"을 심어주는 기제가 된다(이상봉, 2018, 127~128). 특히 학술담론과 언론보도의 지형 역시 서울과 수도권에 쏠린 경제와 문화 인프라와 같은 물리적 격차를 상징적인 위계로 고착화하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강준만, 2008, 2015).

박소진(2007)은 강북 지역 어머니들의 사례를 통해 자녀교육과 관련된 이들의 서사 속에 아파트와 주택, 강남과 강북, 해외파와 국내파라는 '공간적 위계 수사(spatial stratification trope)'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대중적으로 수용되는 가족의 규범이 위계화된 공간적 표상을 반영함을 드러낸다. 이

같은 공간적 위계수사는 한국사회에서 중앙과 지방이라는 공간의 차별적 상징화 구도 속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특히 한국 가족의 계급전략의 지역적 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은 공간적 위계수사의 중요한 범주가 되며 이는 개인들의 미시적인 실천을 통해 강화된다. 임윤서·안윤정(2017)은 지방 출신 여대생들의 서울이주 서사를 분석하면서 이들의 이주 단계에서 ‘지역탈출(숨 막히는 나의 고향, 가족과 관계로부터의 탈출)’, ‘학벌주의(대학은 당연한 서울, 입시경쟁에서 승리)’, ‘서울로망(기회의 쏠림, 자원의 중심지)’이라는 키워드를 추출해 냈다. 일자리나 문화시설을 비롯한 각종 자원의 결핍에 더불어 청년기의 삶의 역동과 대비되는 것으로 주변부 지역에 부과된 낙인은 많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장소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Mærsk et al., 2021).

제주 지역의 산업화는 한국사회의 불균등 발전의 흐름에서 관광을 분업적으로 떠맡으면서 이루어졌으며, 대규모 관광개발은 거주민보다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방식으로 도시구조를 재편했다(이상철, 1995; 조성윤, 1995).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자유도시’ 기조에서 글로벌 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확대되는가 하면, 한국사회의 ‘탈도시화’ 흐름에 힘입어 대안적 삶의 터전으로 이주민의 각광을 받는 모순적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다.⁷⁾ 2010년대 이후 제주 이주 붐은 은퇴 후 인생 2막으로 일컫는 기존의 귀농·귀촌 양상과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30~40대인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도시의 삶을 뒤로 하고 삶의 터전을 옮기는 다운 시프트(down shift) 현상으로 설명되었다.⁸⁾ 한 달 살기, 1년 살이 등 일시적 관광이 아닌 단기 거주 형태 증가와 더불어 젊은 세대 인구의 대거 유입은 제주가 더는 주변적이고 낙후되어 있는 지방이 아니라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으로서의 위상으로 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7) 2010년을 기점으로 제주로 인구 순유입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10년간 인구가 12만 명이 증가하면서 제주 지역은 급격한 변화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8) 《제주의소리》(2012.10.23) “이젠 ‘말은 서울로, 사람은 제주로’ 보낸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602>(검색일: 2021.12.15)

‘주변부’로서의 제주공간이 ‘관광의 시선(tourist gaze)’을 통해 지배문화 상상과 감정적 레퍼토리를 투사하며 상징적으로 재구성됨을 의미한다(Urry 1990; Shields, 1991).

반면에 여전히 제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에게 서울과 지방이라는 공간위계는 떨칠 수 없는 것으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같은 고질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지역은 벗어나고 싶은 곳으로 표현된다.⁹⁾ 제주특별자치도(2017)에 따르면 지역 거주만족도에 대해서 제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은 문화 인프라의 부족으로 취미와 여가 생활의 불만족을 지적하지만, 제주로 이주한 경우에는 바다와 오름 등 자연환경을 누리는 여가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청년층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청년들은 대부분 제주라는 주변부 지역에서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보내면서 정주 속에서 이주를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배적인 공간인식을 수용하면서도 때때로 소극적인 협상으로 이를 전유해 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장소를 폐쇄적이고 고정적인 경계를 갖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심과 주변이라는 공간인식이 어떻게 경합되고 재구성되는지, 장소 경험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중심과 주변을 대비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우리의 사유체계가 일상적 실천을 어떻게 투과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과 연구참여자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병행했다.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

9) “제주 인구유출 ‘청년·산남’ 집중…지역격차 확대 우려”, 《제민일보》, 2021년 5월 26일 자,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8500>(검색일: 2021.12.28); “제주로 유입인구 느는데 청년 유출은 심화”, 《제민일보》, 2021년 3월 20일 자,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907>(검색일: 2021.12.28).

층면접(in-depth interview)은 설문조사나 각종 통계 등의 양적 접근보다 미시적인 현상을 포착하고 연구참여자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정서, 욕구, 태도 등에 주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행위자인 개인이 마주하는 사회적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데서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제주 지역 여성청년들의 독립 경험은 학창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내밀한 경험과 사회적 조건이 마주하는 실천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심층면접법을 택했다.

연구참여자는 모두 14명이다. 이들은 원가족과 분리된 공간을 구축한 경험을 가진 23세부터 34세까지 비혼¹⁰⁾ 여성들이다. “잔류”의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제주 지역에서 나고 자란 경우를 위주로 참여자를 모집했지만 약간씩 다른 거주 경로도 있다. C는 청소년기에 가족과 다른 지역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E는 청소년기와 대학까지 제주에서 지냈지만 이후 10여 년간 도쿄에서 생활하였다가 제주로 되돌아왔다. M은 청소년기를 제주에서 보내고 서울에서 학업을 마친 뒤 취업했다가 제주로 되돌아왔다. 제주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으나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제주로 이주한 여성청년들과 독립을 경험한 남성 청년들도 인터뷰했지만 분석에서는 제외했다.

연구참여자는 지인에게 소개받아 후보군을 추렸으며 연령, 직업, 출신지, 주거 유형 등을 고려하면서 면접을 요청했다. 다양한 지점에 놓여 있는 생애 과정을 포착하고자 대학(원)생,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 프리랜서와 직장인까지 포괄했다. 직장인은 간호사, 교사와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다. 주거 유형에 따라 월세, 연세, (가족 소유의) 자가로 구분했다. 또한 ‘독립’이라고 할 때 흔히 떠올리는 1인 가구뿐 아니라 애인, 친구 또는 자매와 동거

10) 최근 페미니즘운동에서 ‘비혼’은 이성애규범성에 저항하는 정치적 실천의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생애주기의 결여로 묘사하는 ‘미혼’의 대체어로 ‘비혼’을 사용하지만, 여기에 여성들의 특정한 정치적 층위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우리가 인터뷰한 여성들은 모두 비혼 상태에 있으며 지속적인 ‘비혼’ 가능성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혼계획이 있는 여성들을 포함했다.

<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사례 구분	출생연도 (나이)	출신지	최종 학력	직업	현재 주거 지역	주거 유형	현재주거비 (본인 부담)
A	1990 (32세)	제주시 동 지역	대학(4년제) 졸	간호사	제주시 동 지역	빌라(방2개) 연세	보증금 200만 원/ 연세 636만 원
B	1990 (32세)	제주시 읍면 지역	대학(4년제) 중퇴	공무원	제주시 동 지역	아파트 연세	보증금 200만 원/ 연세 400만 원
C	1999 (23세)	제주시 동 지역	대학(4년제) 재학	대학생	제주시 동 지역	가족 소유 원룸	—
D	1991 (31세)	서귀포시 읍면 지역	대학원 석사 과정 재학	프리랜서	제주시 동 지역	아파트 연세 / 애인과 동거	보증금 100만 원/ 연세 400만 원 (100만 원)
E	1988 (34세)	제주시 동 지역	대학(국내 2년제) 및 일본 전문학교 졸	이직 준비	제주시 동 지역	가족 소유 아파트	—
F	1992 (30세)	제주시 읍면 지역	대학(4년제) 졸	이직 준비	제주시 동 지역	가족소유아파트/ 연니와동거	—
G	1995 (27세)	제주시 동 지역	대학(4년제) 졸	교사	서귀포시 동 지역	오피스텔	보증금 50만 원/ 월세 45만 원
H	1993 (29세)	서귀포시 읍면 지역	대학원 석사과정	시민단체 활동가	제주시 동 지역	다가구주택 하우스웨어	보증금 300만 원/ 연세 350만 원 (보증금 150만 원/ 연세 180만 원)
I	1994 (28세)	제주시 동 지역	대학원 석사 과정	대학원생	제주시 동 지역	친척집 거주	—
J	1991 (31세)	제주시 읍면 지역	대학(4년제) 졸	공기업 계약직	제주시 동 지역		보증금 200만 원/ 연세 500만 원
K	1992 (30세)	제주시 읍면 지역	대학원 석사과정	공공기관 계약직	제주시 동 지역	다세대연립 약 19평	보증금 35만 원/ 월세 35만 원
L	1993 (29세)	제주시 읍면 지역	대학(4년제) 졸	공무원	제주시 동 지역	가족 소유 투룸 거주	—
M	1991 (31세)	제주시 동 지역	대학원 석사과정	시민단체 활동가	제주시 동 지역	친구와 다세대 연립 투룸 거주	보증금 500만 원/ 연세 580만 원
N	1993 (29세)	제주시 읍면 지역	대학(4년제) 졸	학원강사	제주시 동 지역	동생과 함께 다세대 연립 거주	보증금 100만 원/ 연세 200만 원

하는 경우나 쉐어하우스에서 거주하는 등 다양한 가구형태를 꾸리고 살아가는 여성청년들을 포함하였다.

면접은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202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로 제주시 소재 커피숍에서 이뤄졌다. 예외적으로 연구참여자의 사정에 따라 자택이나 직장에서도 이뤄지기도 했다. 반구조화된 면접법으로 청소년기부터 진로 선택 경로, 독립의 계기와 과정, 이후 계획이나 전망 등을 연구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질문을 덧붙여가며 진행했고, 1~2회 면접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소요됐다. 참여자들에게 연구 활용 동의를 얻어, 면접 내용은 녹취문으로 작성한 뒤에 분석에 사용했다.¹¹⁾

3. “잔류”로 표상되는 지방 거주

오랫동안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에게서 독립해 집을 떠나는 것은 스스로를 자율적인 개인으로 정체화하는 필수적 과정의 일부로 생각되었다. 성인기로 진입한 많은 청년들은 결혼, 교육, 군대나 일을 위해 집을 떠나며, 이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Blatterer, 2020: 17). 특히 주변부 지역의 청년들은 빈번하게 중심지향적인 이주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받기 때문에 주변부 지역에서 이주하지 않고 ‘남아 있는’ 청년들에 관한 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다. 이동성(mobility)과 부동성(immobility)의 불균등한 학문적 관심 역시 이러한 과소재현을 설명한다(Thommassen, 2021). ‘집을 떠나는 것’으로서의 성인기로의 진입은 이제껏 살아온 익숙한 집과 고향이라는 경계를 넘어 새로운 공간적 상상을 모색하도록 복돋음을 의미하는데, 이

11) 윤택립(2019)은 보관의 용이성 탓에 음성 자료의 녹취문(transcript)은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한국 구술사 연구에서 최대한 들리는 그대로 문자로 하되 되도록 구술성을 반영한 녹취문을 선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채택한다.

는 언제나 사회문화적으로 축적된 상징체계들을 수용하고 협상하면서 이뤄진다.

그렇다면, 성인기에 진입하면서도 나고 자란 집/지역을 떠나지 않은 청년들은 어떤 공간적 상상을 통해 자신들의 ‘정주’를 사유하고 있을까? 이들은 중앙과 지방, 이주와 정주라는 위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 혹은 거부하고 있을까? 한국사회에서 공간적 상징체계는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위계 속에서 제도화되어 왔다. 불균등한 경제발전이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차원까지 확대되고 사람들의 미시적인 실천을 통해 재생산됐다고 할 때, 이 미시적 실천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인서울(In-Seoul)’이라는 서열화된 대학체계를 두고 벌어지는 한국 가족의 교육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강준만, 2015). 특히 IMF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와 한국 중간계급이 겪은 불안정한 전망은 젠더화된 분업을 통해 계급재생산 수단으로서 교육에 더욱 아낌없는 투자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로 이어지며 집단적 열망을 만들어내고 있다(조은 2004; 2008; 조주은, 2004; 박혜경, 2009; 백진아, 2009).

너무 한 곳에서만 자라다보니까, **저는 인서울, 대학만큼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이게 있었거든요.** 약간 인문계 나온 고등학생들은 다 꿈이 있잖아요, 인서울. …… 그런데 부모님이, 수능을 친 다음에, 수능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온 거예요. **약간 제주도 부모님은 이름 있는 데 아니면 왜 가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름 있는 데 갈 만큼의 그계 안 나오니까, 엄마가 되레 설득을, 교대로 가라.** 제 성적이 그 넣어볼 만큼은 되가지고. **너 성적에 맞춰가지고 제일 갈 수 있는 좋은 곳.** 그리고 저도 재수를 하기가 너무나 싫어서. 넣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건, 그러면서 육지 교대를 알아봤거든요. 그 와중에도 떠나고 싶어서. 하지만 결국 제주도 교대로 가게 되어가지고. 부모님 설득한 게 커가지고. …… **인서울, 그 급이 있잖아요. ‘서연고중경외시건동홍’, 저희 엄마는 또 여대? 이화여대 그런데. 들어본 데 아니면 다른 데 왜 가냐? _G**

그때는, 대학준비 할 때는 육지 대학도 붙었거든요. 처음에는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런데 동생도 육지를 가겠다고 한 상황이었어요. 개는 시험은 안 본 상황이었지만, 이과라서, 무조건 위(육지)에 공대를 가겠다고 해서, 부모님이 그 생각을 하고. 한 명은 제주도에 같이 있었음 좋겠나 봐요. **아빠가 दिल을 해가지고, ○○대[지역 소재]를 가면 노트북을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 근데 솔직히 육지를 가고 싶었어요, 육지를. 벗어나고 싶어서. …… 문득문득, 그때 서울 갈 걸. 여기는 되게 그때는 더 뭐가 없었잖아요. 뒤통지는 것 같고. _ B**

잘 알려져 있듯이 지방청년들에게 독립의 계기를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사건 중 하나는 대학 진학이다. 지방청년들의 서사에서 ‘인서울’은 경쟁 사회가 요구하는 성취를 이루면서도 가족들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인서울’은 문자 그대로 서울 지역에 위치한 대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서열체계의 상위권에 속해 있는 특정 대학의 집합을 의미한다. 청소년기부터 ‘인서울’을 꿈꿨던 G는 수능성적이 “이름 있는 데 갈만큼” 나오지 않자 지방 교육대학에 진학하라는 부모의 권유를 받게 된다. 지방대학이라 하더라도 교육대학 졸업생들의 임용고시 합격률은 매우 높은 편이라 취업도 보장되어 있는 데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권유받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가족의 자원을 투자할 만큼의 “이름 있는” 대학이 아니라면 이주를 감행하면서까지 대학 진학을 해야 할 필요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G는 “그 와중에도 떠나고 싶어서” 다른 지역의 교육대학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이주했을 때 들어갈 여러 비용을 고려하면서, “성적에 맞춰가지고 제일 갈 수 있는 좋은 곳”인 제주 소재의 교육대학에 진학했다. 이렇듯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많은 학생과 가족들에게 다른 지역으로의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과정은 만만찮은 ‘상경’의 비용과 지방 국립대학에서 취업 보장이 되는 학과 사이에서 손익을 저울질해 보며 ‘갈만한’ 대학과 ‘애매한’ 대학을 구분하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진학 계획에 예상되는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이루어진다.

B 역시 다른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합격했지만 아직 고등학생이던 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한 명은 제주도에 같이 있”기를 원하는 부모의 뜻에 따라 “벗어나고 싶”었던 자신의 바람을 포기하고 제주 지역에서 진학을 하게 된다. 지방을 떠나지 않고 남는 선택을 하는 것이 B에게는 “뒤처지는 것” 같은 감각으로 남아 있다. 이 “뒤처지는 것” 같은 감각은 어째서 생겨나는 것일까? 지방청년들의 ‘정주’가 지방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 즉 “잔류”하는 것으로 표상되는 현실은 이른바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개인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이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상징적 우위를 누리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자기계발 이데올로기의 단면을 보여준다(서동진, 2009; 오찬호, 2013). 이런 맥락에서 지역을 떠나는 ‘탈제주’는 스스로와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성취’로 여겨진다. ‘인서울’ 대학이 갖는 일종의 지위재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지방과 지방대학에 대한 낙인이 심화되고 이는 이 위계를 더욱 강화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박경, 2020).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나는 선택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계급과 젠더와 같은 사회적 분절선을 따라 조건 지어진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들의 진로포부에 전반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라루, 2012),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정보의 불균등, 낮은 대도시 생활이 뿜어내는 두려움과 같은 상징적 차원을 포함하여 더욱 양극화되었다.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서울의 명문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 역시 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이안나, 2014; 강준만, 2015: 123).

저는 무조건 서울을 가고 싶어 했어요. …… **인프라가 서울이 젤 좋긴 하니까.** ……
 제가 …… 원래 3개 학교를 쓰잖아요. 제가 소원도 막 빌었었거든요. 다군만, ○○대 [지역 소재]만 떨어지게. 그 정도로 ○○대 가기 너무 싫어했었는데 ○○대만 붙어버리니까. 너무 다니기 싫어가지고 1학기 때는 전공도 잘 안 듣고, 수업을 잘 안 들었었어요. 뭐가 **제가 성공하려고 하면 ○○대에서는 약간 아닌 것 같은데.** …… 제가 21살 때부터인가? 인스타가 나왔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

올이랑 제주도의 차이를 더 실감하게 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멋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또 서울에 있었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도 있었고, 사람들도 더 다양하고 하나까.** 뭔가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_ I

그냥, 뭔가 욕지로 많이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딱히 뭔가 하고 싶다는 아니었고, 제주도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제주도는 섬이고 한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고등학교 때 문화생활 관심 많았었거든요.** 뭐 전시회나 페스티벌 음악 이런, 여러 가지. 또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거 뭐라고 하죠? **대외활동 같은 것도 많으니까, 무조건 욕지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 재수할 생각은 안 해봤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가지고. 근데 일단 학교 가서 1년 동안은 학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어떤 마음이었는지요?) 대학교 1학년 때는 학교에 원해서 간 과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말이나 건수만 있으면 서울로 놀러갔던 것 같아요. 진짜, 페스티벌 같은 것도 많이 가고, 방학 때는 서울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죠. _ J

I와 J가 “섬이고 한정적인 공간”인 제주에서 벗어나서 서울로 향하고 싶었던 경험을 설명할 때, 성공의 발판으로서 ‘명문대학’, 가족과 좁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 문화생활과 다양한 경험으로 특징되는 도시적 삶은 ‘서울’이라는 공간에 투사되어 폐쇄적인 섬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것으로 상상된다. 청소년기를 제주 지역에서 보낸 이들에게 ‘서울’은 아직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장소가 아니었음에도 다양한 삶의 기회와 역동이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이는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된 물리적인 토대에 입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디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을 일방적으로 재현하는 경향 역시 이 상징적 위계를 심화한다. 익숙한 가족과 친구의 테두리를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하기 위한 “인프라”가 지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시회나 페스티벌”, “대외활동” 같은 “누릴 수 있는 것”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다. “성공하려고 하면” 지역을 벗어나야 할 것

같다고 여겨지는 까닭이다. 이들은 모두 지방에 ‘남아서’ 대학에 진학한 뒤에 “학교를 되게 싫어”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업을 잘 안” 듣고 “건수만 있으면 서울로 놀리”갔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공간적 상상에서 제주의 장소성은 서울에 대비되는 것으로 구성된다. 부르디외가 민족국가의 성립에 수반된 언어시장의 통합이 공통언어라는 유일한 잣대를 중심으로 언어적·지역적 차이를 위계화하고 자연화하면서 상징지배를 지속시킨다고 설명했듯이, 중앙과 지방의 위계관계는 실재를 인식하는 자연스러운 인식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부르디외, 2014). 이 관점에서 주변부 지역에 부과된 낙인은 도시에 전형적인 청년기의 삶의 기회나 역동과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은 떠나야 할 곳으로 여겨진다(Mærsk et al., 2021).

한편, 이런 열망은 다양한 경험과 자율성으로 표상되는 도시의 소비주의적 성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이는 근대도시가 갖는 소비주의적이고 배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통제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역설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가부장적 농촌질서의 와해와 함께 도시의 쾌락에 참여하게 된 ‘여성 산책자(flâneuse)’에 관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의 논의는 도시의 익명성이 여성들을 유혹하는 동시에 보호하기도 했음을 보여준다(맥도웰, 2010: 266~272). 연구참여자들에게 제주를 떠나 지낸다는 것은 학연, 지연, 혈연 등 기존에 구축된 관계망이 종신에 가까운 효력을 발휘하는 지역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뜻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역에 정주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자유에 대한 열망은 어떻게 교섭되고 발현되고 있을까? 이 과정에서 이들이 수용한 지배적인 공간위계에 균열이 생기지는 않을까? “잔류”로 표상되는 지방 거주는 이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다양한 공간실천을 통해 변형된다. 다음 두 절에서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독립 실천의 이행

중앙과 지방, 이주와 정주라는 이중의 위계 속에서 지역에 “잔류”한 여성청년들은 어떤 계기로 독립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을까? 또 이들이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가능성은 무엇일까?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성인기는 노동, 결혼, 모기지, 가족, 이혼, 투자, 보험 등과 관련되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시기로 여겨지는 데 반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덜 명백하고 모호한 경험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 성인기의 지표가 무엇인지, 스스로의 지각이나 생애 관문의 통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성인기는 당연시되었던 지위를 잃어버리고 모호하고 우발적인 것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현실과 무관하게 규범으로서 표준적 성인됨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는 안정적 관계의 이상,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 자신의 가족, 독립적 생계와 관련되며, 표준적인 성인됨은 사회적 능력의 축적과 함께 자기인식과 자존감을 가능하게 한다 (Blatterer, 2010: 13~16). 한편으로는 경제적 곤란이,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변동이 자리 잡으면서 무한한 선택지가 펼쳐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어떤 것도 달성할 수 없는 시대의 곤경은 이들의 독립과정에서 드러난다.

‘집’이 폐쇄적이거나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다중적 스케일의 중첩으로 구축되는 장소라는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같은 집-공간에서도 차별화된 감각과 의미가 생산됨을 추측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나고 자란 지역에서 대학 진학을 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서도 꽤 오랜 기간 원가족과 함께 거주했는데, 생활 패턴부터 연애, 늦은 외출, 결혼에 대한 압박 등과 같이 일상적인 활동들에서 부모의 통제를 맞닥뜨리면서 ‘우리 집’ 안에서의 시공간 충돌을 경험한다. 같은 집 안에 살면서도 ‘나만의 공간’이라는 감각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이 공간이 집에 거주하는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점유되거나 통제력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듯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없거나 침해받는 경험은 자기만의 공간을 꾸리는 적극적인 열망을 촉발하지만 경제적 형편으

로 당장 독립이 불가능한 현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내 집” 같지 않다는 이 불화의 감각은 많은 참여자들이 독립 후 가장 달라진 점으로 ‘나만의 공간’을 꼽은 이유이기도 하다. 가족들과 같은 물리적 공간인 ‘집’에 있더라도 각자가 점유하는 위치와 자율성의 차이가 발생하며, 한 집에 거주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공간과 시간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타협된다(백런타인, 2014: 123~128).

아빠는, 화 한 번 안내고. 엄청 딸바보? 너무 너무 다정한 아빠고. 근데 가부장적이네요 되게. *(어떤 면에서?)* 집안일을 잘 안 도와주세요. 그런 거에서 가부장적이라 느끼고. 엄마는 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세요. 걱정 많으셔가지고. 학창시절에는 간섭을 많이 받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행동, 걸음걸이, 이런 것도 다. 먹는 것도 그렇고.** *(오빠한테도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불만은 없었어요?)* 되게 많았어요. *(어떤 면에서요?)* 중학교 때나 이럴 때는, 엄마가 오빠만 더 신경 쓰는 게 느껴졌어요. 오빠 오면 맛있는 거 해주고. 약간 이런 거? **오빠한테는 집안 일 안 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싸웠었죠.** _J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제사나 그런 거 하면 언니랑 엄마랑 하면 남자들은 절만 하고 먹을 것만 먹다가 사라지는 게 싫었어요. 왜 나만 하냐고 하면 오빠들은 남자잖니 했어요. 음식, 청소, 빨래 너무 싫었거든요. …… 부모님이 여자가 사는 집이 이게 뭐냐고 시작해서 여자니까 압박하는 느낌. **집에 늦게 들어오면 안 되고, 오빠 밥 차려줘야 한다, 집안일을 해야 한다. 농사를 지으니까 저희 형제가 어릴 때부터 밖에 일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주말마다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다 부블 노동이거든요.** 지금은 절대 안가요. 못 간다고 해요. …… 이사 나오기도 처음엔 제사 음식도 차리러 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가요. 늦게 가거나. 차례 때는 아프다고 하면서 안 가거나 당일에만 가고 그랬죠.** *(섭섭해 하진 않으세요?)* 그런 거 같은데 그런데 저도 이제 컸고 알아서 하니니까 크게 섭섭해 하진 않으셨어요. 의외로 처음에는 덜덜 떨었어요. **엄마 고생할 텐데.** 생각한 것만큼 큰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_K

J와 K는 원가족과 거주하는 시기에 집안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가해지는 간섭과 차별을 언급한다. 이들은 친구관계, 옷차림, 행동과 걸음걸이와 먹는 것 까지를 포함한 간섭이 남자형제와는 다르게 자신에게만 가해지는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은 자녀의 진로, 취업과 결혼 문제와 같은 굵직한 생애사건 뿐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신체적 습관을 빚어내는 데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에이드리언 리치(Adriene Rich)의 말처럼 신체를 “가장 친밀한 지리”이자 개인적 ‘공간’이라고 본다면, 공간으로서의 신체는 문명과 계급 취향 그리고 담론이 각인되는 표면이자, 감각적 경험이 일어나는 장소이고 다양한 스케일의 사회구조가 중첩되는 연결점이다(백런타인, 2014). 특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통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이런 의미에서 집은 젠더화된 사회적 규범을 가장 직접적으로 신체에 각인시키는 장소로 기능한다.

가정 내에서 당연시되는 젠더화된 노동경험 역시 불화의 감각을 만들어낸다. “여자니까”, “집에 늦게 들어오면 안 되고, 오빠 밥 차려줘야 한다, 집안일을 해야 한다”라는 부모의 압박은 ‘보이지 않는 노동’을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해 온 가부장적 문화를 드러낸다. K는 이처럼 엄격하게 젠더화된 분업을 “부불노동”이라 표현하면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이 분업을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 비로소 독립을 한 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아프다고 하면서” “잘 안가”거나 “늦게 가”곤 하지만 자신이 이 노동을 거부했을 때 “엄마의 고생”으로 이전되는 것이 마음에 쓰였다고 말한다. K의 경험은 외부로부터의 인식처럼 가정을 사유하는 인식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평등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고 과거의 성역할과 젠더규범의 약화를 체감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관습을 요구하는 가족의 모습을 직면한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혈연과 이성애 규범, 사회재생산 등이 접합되어 있는 자연발생적 운명공동체로 내면화되면서 가족구성원의 이질성과 특이성을 지

각하지 못하고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며 사회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환원해 왔다. 최근 제기되는 가족 해체나 위기 같은 프레임에서 빗겨나 표준적 가족의 장소성을 되물으려면 매시가 언급한 것처럼 장소에 경계를 두르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불변의 것이 아니라 논쟁적이고 복수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가족이 과연 안전한 장소인지, 개개인마다 이질적으로 느끼는 가족에 대한 장소감을 짚는 것이 필요하다(류도향, 2020: 223~224; 매시 2015: 280).

(독립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마찰이 있었고. **따로 살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아무도 제주도에서는 따로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친구가 먼저 신제주에 취업을 하게 되어가지고. 근데 개가 일도지구에 살거든요, 본가는. 근데 개가 (나가서) 사는 거예요. 일도지구에서 신제주로. 서귀포 → 제주시는 있는데 구제주는 없었어가지고. 엄마도 그런 집이 어딴냐, 했었고. 근데 친구가 하게 되니까 저도 따로 혼자 살고 싶다, 해서. …… 엄마는 **누가 10분 거리에 사냐, 반대를 하셨죠.** 돈을 모아라,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 돈 아껴라, 했었어요. **집이 멀쩡히 있는데 왜 나가서 사냐. _ I**

가정 내에서 시공간 충돌을 겪으면서 독립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가족들은 “그 돈 아껴라”, “집이 멀쩡히 있는데 왜 나가서 사냐”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가족규범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여성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서도 물리적인 독립을 실천하는 것은 원가족에서 새로운 가족으로의 ‘평범한’ 이행을 당연시하는 사회규범에 예외적인 일로 여겨진다. 실제로 제주 지역에서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며, 인터뷰 참여자들 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부모와 같은 지역에 살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독립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¹²⁾

그러나 이는 단순히 지역의 문화적 특징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부모의 반대는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져 독립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진학이나 취업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면 소모적인 비용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현실과 관계된다. ‘인서울’이 가족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까닭은 ‘좋은 학벌’을 갖는 것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듯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점차 희소해지는 현실은 입시와 각종 취업 준비가 가족 프로젝트로 여겨지는 까닭을 설명한다. 제주 지역 내에서도 읍면 지역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제주시내 소재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위해 고등학생 시절부터 자취를 하거나 먼 거리를 통학하는 경우가 있다.¹³⁾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와 제주시 위주의 대학,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시설 등의 도시구조로 인해 읍면 지역 출신 학생들과 부모들에게는 일찍부터 자취를 시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는 모든 ‘독립’이 규범에 위반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입시에 유리한 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혹은 가정을 만드는 경우 ‘독립’은 가족들의 적극적 권유와 지원 속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이마저도 개별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의존해야 하므로 계층격차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독립’이 삶의 현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경우에만 긍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규범적으로 여겨지는 ‘이상’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실천만이 정당화되며, 이 경로를 벗어난 ‘현재’는 유예된다. 이는 불안정성의 심화 속

12) 2018년 기준 제주 지역 1인 가구에서 청년 1인 가구(가구의 연령이 19~39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8.6%로 전국 35.1%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서울(47.9%), 대전(46.2%), 세종(54.7%) 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19).

13) 제주 지역은 제주시·서귀포시라는 두 행정시로 구획되어 있지만, 한라산을 기준으로 산남-산북을 가르며 도심 지역으로 일컫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한다. 공간 감각 또한 이동 시간이나 물리적인 거리보다 이를 기준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지리 분포는 지역 내에서 선호하는 고등학교의 분포와도 거의 일치하는데, 제주시내 동과 읍면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주시내에 있는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하지만, 실제로 전체 학생들 중 약 50%만이 진학할 수 있다(강봉수·정진현, 2010).

에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집단적 불안감의 단면을 보여준다.

마침 오빠도 결혼을 해서, 우리 집을 오빠한테 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신혼집으로
 써야 하니까. …… **제 의지보다는, 약간 쫓겨난 거라고 하면 좀 나쁜 표현이고, ‘아
 내가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구나’, 하고 나왔어요.** …… 그런데 보통, **제주도 문화
 가 제주시 집을 사두면 아들한테는 가니까, 그런 게 좀 있죠.** …… 뭐 문화를 무작정
 비판만 할 순 없지만,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당연한 거
 라서 그렇겠지만. 지금 정서상으로 이해는 못 하고. 어릴 때부터 오빠한테 너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집은 네 거다.** 그러니까 그 인식이 너무 깊이 박혀가지고. 저한
 테도, 저도 살 수 있는 집인데,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뭐가 남의 집에서
 사는 기분인 거예요.** _ F

한국사회에서 가장 규범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독립’은 역설적으로 양가 부
 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이뤄지는 ‘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 읍면 출신인
 F의 부모님은 제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고 아들의 신혼집
 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제주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였다. F는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까지 이 집에 살았지만 오빠가 결혼하면 ‘오빠의 신혼집’이 되었다. 부
 모님은 F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집을 같이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오빠의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남의 집에서 사는 기분”을 느꼈다고 설명한다. 어린 시
 절부터 부모님이 그 집은 오빠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공간에 대한 주장을 하는 대신에 “아 내가 지금 나가야되는 상황이구나”를 인
 식하면서 집에서 나오게 된다. F의 부모님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F가 지낼 곳
 을 마련해 주기는 했지만 증여 계획은 없다. F는 남자형제에게만 자산이 증여
 되는 현실이 “지금 정서상으로 이해는 못하”지만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아왔
 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당연한” 일이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여전히 부
 모로부터의 자산 이전도 젠더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며 이는 여성청년들의 독
 립이 더욱 주변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여전히 주택 소유는 ‘결혼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지배적 통념이 존재하며, 자산의 대물림으로 연결되는 ‘자가소유’는 핵가족 규범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Austerberry and Watson 1981).

학교 졸업할 때 좀 아쉽더라고요. 공부는 못해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대학원 갈 형편은 어려웠으니 떠밀리듯 일을 했는데 전문적인 일은 못 했죠. 사무직원? 그런 거 하다가 공공기관에서 3개월 일했는데, 거기 일하던 계기는 ○○대학 취업 알선해 주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연결해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3개월 하고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친구의 소개로 청년들끼리 모인 업체에도 있었어요. _ K

생각해 보니까 1년 이상 살았던 집이 없어요. 뭔가 하자가 있거나. 매년 옮겨 다녔는데. 계약이 끝나갈 때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이제 또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위치도 봐야 되고 돈도 따져야 되고. …… 지금 집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다시 계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 뭔가 ‘내 집’ 이런 곳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옮겨 다니니까. _ J

여성청년들의 독립이 부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경향은 이들이 부모의 의지에 반하여 독립을 실천하기에는 턱없이 취약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로 더욱 심화된다. 청년들이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의 경계를 짓고 확장하고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곤란에 부딪히게 하는 거시적인 조건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제의 금융화이다(실바, 2020). 부동산 문제와 불안정한 단기계약직 일자리의 증가는 청년들 스스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독립을 감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낸다. 한국사회에서 ‘자가소유권’을 매개로 한 부동산문제의 고착화와 자산불평등은 더욱 심화하는데(김명수, 2020), 특히 제주 지역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확대 속에서 2015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다.¹⁴⁾

일자리 상황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관광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저임금 서비스업에 일자리가 편중되어 있으며 5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가장 낮다.¹⁵⁾ 특히나 여성들은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으며, 더불어 여성성 수행을 강요하는 등의 가부장적인 조직문화와 일상화된 성차별을 맞닥뜨린다(이나영, 2014; 신경아 2017).

엘우드(Elwood, 2000)가 레즈비언들의 집 만들기 실천에 관한 연구에서 드러냈던 것처럼 비규범적인 집 만들기의 저항적 위치란 역설적으로 일정한 경제력을 반드시 수반해야만 한다. 연구참여자 대다수는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달마다 혹은 해마다 들어가는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돈 문제’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언제 성인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느냐는 질문에도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스스로 밥벌이’, ‘책임’과 같은 경제적 독립과 관련된 단어를 꼽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이후에 첫 독립을 감행한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독립 과정이 수월한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가족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갖기가 어렵고 독립 경험 역시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이 같은 거시적 조건의 악화는 많은 청년들이 독립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독립을 했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원가족에게 되돌아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¹⁶⁾ 이 불안감은 많은 청년들을 현재의 수입과 지출을 미래에

14)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제주 지역에서 청년들의 주택소유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이 주택을 소유한 비율(가구의 연령이 만 20~39세인 일반가구)은 34.2%로 전국 평균 32.7%보다 소폭 높은 편(17개 시도 중 12번째)이지만, 주택 소유 가구 중 2건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중이 2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2020).

15) “[으쌔!!제주노동] 제주 노동자 3명중 1명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까닭”, 《제주투데이》, 2021년 8월 24일 자,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71> (검색일: 2021.12.28).

16) 제주 지역 여성청년들이 독립을 했다가 ‘원가족과 다시 함께 산 경험’은 20대에서 34.4%, 30

투자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합리적’이라고 느끼도록 한다. 노후준비와 주택과 같은 사회보장을 개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요소이다. 이는 청년들의 ‘내 집’에 대한 열망을 ‘자가 소유’에 대한 열망으로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주거 점유 상태에서 탈피하려는 욕망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들의 독립 실천은 한편으로 ‘미래’를 향한 투자인 경우에만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다른 한편으로 이 실천 자체가 장기적 전망으로 ‘미래’를 상상하기조차 곤란한 취약한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이뤄진다는 역설을 내포하고 있다.

27살 때 엄마랑 갈등이 많았어요. 나가라, 마라. 제가 그때 ○○에서 일을 했는데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부터 일을 하는 거고 한 달에 얼마씩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라 **그때 일 핑계로 당시에 만난던 애인 집에서 묵고 거의 한 달에 반을 안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 같아요. _ D**

[임용] 합격하고 희망 지역을 쓰는데, 제주시내로 쓰면 제가 운전을 할 수 있어가지고 무조건 엄마 집에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 **어디든지 좋으니까 무조건 집이랑 먼 곳. 1,2,3지방 다 서귀포로 쓰고. 제주시 시내 지역인데 시내는 6순위로 썼어요. 집에서는 멀리 떨어지겠다. _ G**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독립을 감행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독립의 ‘계기’를 우연히 또는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전략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부모의 통제를 독립의 이유로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원가족과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으로 취업을 선택하거

대에서 22.6%로 나타나며, 생활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인 문제가 64.1%를 차지하고 있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8).

나 지속해서 장시간 외출을 감행하는 식이다. 혹은 부모가 내세우는 조건을 수용하면서 경제적으로 협상력을 갖게 될 때까지 독립을 미룬다.

D는 어머니에 대해 “딸인데 늦게 들어온다. 딸이 안 들어온다, 연락 안 한다, 그러면서 알아서 잘하는데 내 인생인데 신경을 쓰는데 대한 불만이 컸었고 마음 붙일 곳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당장 독립하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주 애인의 집에서 자고 오는 식으로 외출 시간을 늘리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나갔다. 일과가 끝나고 집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점진적으로나마 공간을 분리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제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일하고 있는 G는 근무 희망 지역을 선택할 때 “무조건 집이랑 먼 곳”을 선택기준으로 삼았다. 자동차로 통근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리여야 독립을 하겠다는 말이라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만약 원가족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독립을 위해 가족과의 대립이 불가피해지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이고 매일 출퇴근을 하기 피로하다는 것은 부모에게도 주변인들에게도 독립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된다.

이러한 전략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형편과 가족규범을 적극적으로 거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피로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비혼 여성들의 독립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회 속에서 부모의 위신이 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어내면서 규범적 젠더 질서와 교섭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자녀를 젠더화된 규범 속에서 ‘보호’하려는 부모에 맞서 나름의 협상을 시도한다. 이는 칸티요티가 언급하듯이 “자신들이 속한 규범적 세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비규범적인 독립을 실천하는 것이다(칸티요티, 2012).

5. 장소성의 재구성

사회적 관계의 복수성이 작용하는 여러 스케일이 집이라는 장소에 중첩되어 있다면(매시, 2015: 43), 이 과정에서 형성되고 작동하는 역선(力線)을 읽어내는 것은 공간의 배치와 관계를 되묻는 일이 될 수 있다. 성인기에 접어들 때까지 중요하게 작용했던 중앙-지방이라는 공간위계는 당연시되었던 가족-집 내부의 충돌을 인식하면서, 나만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파열되기 시작한다. 이는 청년들이 단지 지방에 “잔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스케일의 중첩에서 수용과 협상, 인식 등 청년들의 전망이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살펴볼 필요를 제기한다. 이들이 집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은 중앙과 지방의 공간위계 속에서 작동하는 공간적 상상을 전복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선행연구가 보여준 것처럼 로컬한 것 혹은 장소적인 것이냐는 존재론적 문제설정이 아니라 이것을 둘러싼 정치적 과정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인식론적 문제설정(박경환, 2011: 49~50)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로컬이 글로벌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서 글로벌의 이분법적 타자로 즉각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로컬은 어떻게 구성, 생산, 상상되었냐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박경환, 2011: 59).

(독립하고 나서) 성격이 좋아진 거 같아요. **가족이랑 떨어지고, 왜냐면 집에 있으면 가족의 역할 구성원의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저는 안 하려고 했지만 알게 모르게 해왔고요. 그거에서 벗어나니까 저만을 위한 시간을 쓸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뭔지 독립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 옆에 있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저에게만 시간을 쏟으니 저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_ K

독립적인 공간을 구축할 때는 물질적 자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집’은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로만 환원될 수는 없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독립의 좋은 점을 ‘자유’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물리적인 독립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집을 꾸민다거나 간섭 없이 자신의 패턴에 맞추어 생활하는 일견 사소해 보이는 경험들에서 독립을 실감하다고 말했다. 자신만의 집을 만들면서 비로소 가족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가 아닌 자신에게 주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유를 갈망하게 된 이유는 세대 차이, 강요, 이해받지 못함, 결혼에 대한 잔소리, 생활패턴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새로운 시도를 저지당하는 경험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었다. 이들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집은 자신만의 촘촘한 의미망과 경험을 통해 구축된다. 이들은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왔으며 부모를 벗어나 가족 밖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원가족과 함께 지낼 때와 달리 독립적인 공간에서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페미니즘 독해가 제시하는 ‘집’의 다의성은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장소의 폐쇄성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관계가 얽히고설킨 산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경험과 실천이 축적된 곳으로 집을 인식하면서 의미를 생산하는 장소화(place-making) 과정은, 집을 장소를 지각하고 감응하는 주체의 경험에 따라 그 의미를 다양하게 확장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집이 부여해 온 “장소성의 요소들을 분리하고 전이-전유”하면서 자신만의 장소를 만들어가고 있다(장민지, 2016: 71~73). 가족의 의무를 내려놓고 자신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며 시간을 쓴다거나, 함께 지내는 원가족과의 거주 공간에서 엄두 내지 못했던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는 행위를 축적하면서 집은 또 다른 장소로서의 의미를 구축한다. 이들이 가족과 독립하면서 새롭게 터득하는 집의 의미는 이러한 장소화 과정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

지금 저희는 같은 방에서 자고 지내고 있어요. 자는 방, 생활하는 방 따로 두고 거실 겸 부엌이 따로 있는데. 투룸이고 공간이 좁지 않은 편이어서 같이 자는 건 좋아요. 이 야기도 많이 나누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고. **그래도 같이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이것저것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2주에 한 번 차 마시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갖**

자고 해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이야기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_ H

가족의 일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나’라는 개인은 가족 이외의 친밀성을 공유하는 관계망을 생성한다. 연구참여자 가운데 다수가 친구, 애인, 혹은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이 관계망은 독립 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들의 독립 실천은 ‘진학-취업-결혼’으로 이어지는 지배적 생애규범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과 긴장관계에 있으며, 이성애 중심적인 ‘정상가족’과 다른 관계망을 만든다. ‘독립’이 의존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사유되는 것과 달리 이들의 독립 실천은 다양한 돌봄의 관계망을 만들어간다(프레이저, 2017).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에게만 특유한 친밀성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김혜경, 2017). 전통적으로는 한쪽에만 과도하게 부과되던 돌봄노동을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조직하면서 다른 돌봄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인다. 가족을 돌봄과 애정을 공유하는 ‘유일한’ 제도로 특권화하는 경향에 맞서 새로운 돌봄의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바렛-맥킨토시 2019).

서로를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거 같아요. 예전엔 오빠, 엄마, 아빠였는데. 이제는 누구다, 누구다. 엄청 애뜻하고 보고 싶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잘 지내냐고 묻기도 하고 만나면 가시 돋은 말들 하다가도 이제는 자주 못 보고하니 좋은 말만 서로 해주려고 하고요. _ K

독립하게 될 때는 몰랐는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 누군가 하고 있다는 걸 독립하면서 알게 됐고 그 주체가 엄마였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엄마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집에 가게 됐을 때는 엄마가 하는 그런 걸 내가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아빠가 안 움직이는 걸 불편하게 느꼈어요.** _ G

또한, 관계망은 가족 안에서도 다시 생성될 수 있다. 공간이 분리되면서 기존의 관계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생겨난다. 가족을 부동의 장소로 간주하거나, 일방적 돌봄이 수행되는 정서 공동체로 규범화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각자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면서다. 이미 주어져 있다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가족 간의 애정과 친밀감을 새삼스럽게 표현하면서 정서적 유대를 확인하는 것이다. 더불어 자신의 공간을 갖게 되자 집을 가꾸는데 다양한 필요를 인식하고, 원가족과 살 때는 체감하지 못했던 수고로운 젠더화된 노동을 의식하며 서로의 존재를 살피기도 한다. 이전엔 돌봄을 받던 입장에서 가사 노동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독립 이후에는 원가족과 지냈던 경험에서 가족 간의 관계를 재해석하도록 만든다.

일단 제 목표는 제주도에 있는 거. 제주도에 있는데, 벌이는 서울만큼 받고 싶은 (웃음) 그런 게 있어서. 일단 프리랜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게 제일 시급하죠. 그러려면 우선 서울에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제주도에 IT회사도 많지 않고, 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_ F

아예 못 돌아올까봐, 제주로. **제주도에서 사는 건 좋은데, 부모님이랑 살기 싫었을 뿐이지.** (제주도에서 사는 게 어떤 게 좋아요?) 계속 살아왔기도 하고, 잠깐 몇 년 살다 오는 건 괜찮은데, 다른 지역. 뭔가 나중에 지금은 그런 생각 없지만 **진짜 자리를 잡으면 제주도에서 자리 잡아서 살고 싶다 이런. _ G**

경직된 가족-집이라는 공간에서 불화를 겪으면서, 비교적 유연한 자신만의 공간을 구축하면서 중앙과 주변이라는 공간위계 역시 새롭게 사유된다. 이주를 특권화하는 관점에서는 정주 결정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정 안 함’이나 수동성의 상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주 결심은 적극적인 선택이자 생애주기에 대한 재평가와 재협상의 결과이다. 이는 정주 역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결정되는 과정적인 것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

한다. F와 G의 이야기는 정주 결심에는 친구와 가족을 포함한 관계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응한다(Thomassen, 2021). F는 이직을 위한 교육의 필요 때문에 서울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최종목표는 제주에 돌아와 정착하는 것이다. G의 경우는 고등학교 내내 ‘인서울’을 열망했지만 “제주도에 사는 건 좋은데, 부모님이랑 살기 싫었을 뿐이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관계망이 기반을 두고 있는 제주에 남는 선택을 한다. 수많은 모순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관계망과 경험이 켜켜이 쌓여 있는 장소로 제주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제가 2학년 때인가? 휴학을 하고, 서울에서 살았어요. 친구네 집에서, 1학기 정도. 그러면서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자격증 공부하러 올라간다는 명목하에 올라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그런 식으로 놀기도 많이 놀고 했어요. **그 생활이 저와 맞지 않았다는 걸 알았던 거 같아요. 지하철에서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그게 되게 기 빨렸어요. 그래서 할 거 다 해보니까, 아 제주도에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주도에서 쪽 생활하고 있어요. _ J

(케냐에 다녀오고) 세상이 되게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고민해 봐야겠다, 살아봐야겠다. 삶의 방식이나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 **돌아와서 첫 마음은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 제주에서 살아봐야겠다는 것이었어요. 나고 자란 지역에 뿌리를 내리려는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더 오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뿌리를 내리는 노력을 해보자. _ H

다음 스텝은 무조건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주는 최후의 보루처럼 50~60대쯤 다시 돌아갈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유예하기보단 부딪히는 게 낫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결정하고 제주도에 온 거였거든요.** _ M

연구참여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학 진학 후 제주 안팎에서 국내·해외 교환 학생, 해외 봉사활동, 어학연수, 워킹 홀리데이와 여행을 비롯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공간적 경계를 확대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위계라는 지배적인 표상에는 균열이 생긴다. 머스크 외(Mærsk et al., 2021)가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날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개인이 된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점차 중요한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된다. 따라서 주변부 지역에 ‘정주’하는 청년들은 이 지역에 부과된 사회적 낙인과 싸우기 위해 상징적 이동 자본(symbolic mobility capital)을 축적하고 자신의 서사를 재구축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이들은 정주나 집으로 돌아오는 결정과 관련하여 ‘떠남’을 새롭게 상상하고 협상하면서 지역에 부과된 낙인을 완화해 나간다.

화려하고 역동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던 ‘서울’의 삶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기 빨렸”던 경험으로 해석된다. 외국 생활을 하면서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은 결국 “나고 자란 지역에 뿌리를 내리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울에서의 학업과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했던 고향으로의 정착을 “유예하기보단 부딪”히는 형태로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기도 한다. 이들이 공간위계를 거스르는 실천은 어떤 의미인가? 이는 규범적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현재의 삶을 긍정하는 것, 뒤로 남겨둔 채 떠나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제주의 장소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인서울’과 ‘탈제주’라는 공간위계에서 “잔류”로 여겨지던 정주의 경험을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지역 안에서의 삶의 전망을 새롭게 구축해 나간다.

친구는 대학교 서울에서 나온 친군데, 자기는 처음에 서울을 대학에 갔을 때 중로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 있는 걸 몰랐다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주도가 너무 답답하다, 우물 안 개구리 같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도 제주도 지리 모르지 않냐, 똑같다고 생각한다, 수도라고 다를 게 있냐. 나는 제주도가 더 좋다, 굳이 알고 싶지 않다. 서울에 대해서.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_ I

우리 삶의 미시적인 실천 속에 강화되고 재생산되는 중앙과 지방, 글로벌과 로컬 이분법적 위계는 도리어 역으로 현실의 공간 배치나 관계를 다르게 읽고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관계 구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 위계를 수용하고 협상하거나 전유하고 전복하는 실천을 통해 공간의 배치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가능성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 실천에 내포된 가능성을 단지 개별적인 경제적 독립을 통한 성취로 남겨두기보다 새로운 공간정치의 전환점으로 만들어내는 사회적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6. 나가며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이라는 공간위계 속에서 주변적 공간으로 여겨지는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청년들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공간적·사회적 맥락을 이들의 독립 경험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최근 여성청년들의 독립 과정을 다룬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주거 자본주의 아래에서 주변화되는 여성청년들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지만, 대다수의 연구가 서울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중앙과 지방이라는 공간위계의 차원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청년들이 중심지향적인 도시로 이주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전제, 정주보다는 이주에 관심을 두는 사회과학의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답론 자체에 각인된 서울중심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고자 우리는 서울과 지방, 도시와 시골이라는 공간위계를 축으로 제주 지역 여성청년들의 독립 실천이 어떻게 공간정치적인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청년’으로서의 세대 위치 내부에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관점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를 범주화하는 것은 각자의 경험에서 발견적(heuristic) 맥락을 해석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집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고정되거나 폐쇄된 것이 아닌 개방적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여성청년들의 공간인식에 주목했다. 제주 지역 여성청년들은 중앙과 지방의 불균등 발전 속에서 강화되는 ‘인서울’ 이데올로기와 도시와 농촌의 이분화된 상징을 수용하면서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잔류”라고 표상되는 경험이 있었다. 이런 공간인식을 수용하면서도 정주하는 삶 속에서 ‘진학-취업-결혼’으로 이어지는 지배적 생애규범을 파열시키는 실천을 감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원가족과 대립각을 세우며 독립을 달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속한 규범적 세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전략(칸티오티, 2012)”을 사용함으로써 독립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규범적 젠더 질서에 얽매이길 거부하면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폐기하기보다는 다양한 우회로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들의 협상은 단순히 첫 독립을 결심하고 이행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지속되었다. 이는 지배적인 사회규범의 존재와 틈새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독립적인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은 원가족의 집에서 당연시되었던 이성애 중심적인 ‘정상가족’에 반기를 들며 다른 형식의 관계망과 돌봄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의 가족과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변형해 냈다. 이들은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거시적 조건과 취약한 지역적 여건 속에서 ‘집 만들기의 곤란’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다양한 공간경계를 가로지르며 위계를 수용하고 협상하며 전유하고 전복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협상이 늘 매끄럽지만은 않다. 지역 내에서 독립하려는 시도는 주변의 탐탁지 않은 반응 속에 이루어진다. 진학이나 취업, 혹은 결혼처럼 규범적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기에 이들의 독립은 소모적인 비용으로 간주되며 현재적 사건으로 긍정되지 못한다. 더불어 경제적 불안정성의 심화는 이들의 실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 같은 배경에서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실천은 가족배경이나 개인적인 경제적 성취를 수반해야 한다는 역설을 내포한다. 지배적인 공간적 위계를 거스르고, 사회가 규정해 놓은

정상성에 균열을 내며, 생애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독립 실천’을 개별적 삶의 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원고접수일: 2021.11.11.

심사완료일: 2021.11.27.

게재확정일: 2021.12.08.

최종원고접수일: 2021.12.10.

Abstract

A Spatio-Political Approach to the Young Women's Experience of Independence in Jeju

Kim Hyeon-Young · Kim Tae-Yeon

This paper, considering the young unmarried women's experiences of making their own space in Jeju Island, explores the ways of interpreting the hierarchical dualism of geographical center and periphery in South Korea. Our research question is how the young women who live in Jeju perceive and interpret their own life context, and then how they cope with spatial hierarchy between the urban and the rural, and between Seoul and the local. In some sense, their encounter with the spatial hierarchy cannot but help break through the effects of intermingling social forces such as locality, gender and class. The deepening gap of material (economic) opportunities and of symbolic power between the central and peripheral region is a big challenge to the young generation in Jeju. We define their practices of making their own living spaces as 'processive' and regard these as 'remaining' in their living context. Their practices are neglected in the cultural circumstance that forces the young generation to sacrifice the present for the future. That sacrifice is justified as an investment. It looks like an structurally imposed obstacle. Nevertheless, the young women, particularly unmarried women try to reclaim new places through negotiating between their position within the structure and their own strategic choice. It can be their detour through which they rethink the spatial hierarchy.

Keywords: Spatial Hierarchy, Young Women, Youth Generation Discourse, Independent Experience, Placeness

참고문헌

- 강봉수·정진현. 2010. 「제주 지역주민의 교육요구 조사연구 (II): 제주의 고등학교 교육쟁점과 그 대안」. 《교육과학연구》, 제12권 2호, 455~479쪽.
- 강준만. 2008. 『지방은 식민지다』. 개마고원.
- 강준만. 2015. 「지방의 내부식민지화를 고착시키는 일상적 기제」. 《사회과학연구》, 제54권 2호, 113~147쪽.
- 고병진·김리나. 2018. 「규범으로서의 독립의 실천과 갈등: 서울 거주 20대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35권 1호, 69~100쪽.
- 권민지. 2018. 「내 집 만들기: 주거불안계급 여성청년의 공간전략」. 《공간과 사회》, 제28권 3호, 271~301쪽.
- 권수빈. 2021. 「지방청년은 말할 수 있는가?」. 조무원·홍혜은·서보경·정진세·정경담·김유익·권수빈·김미덕·박유신·박상현 지음. 『한편 6호: 권위』. 민음사.
- 권수빈. 2020. 「청년세대 연구에 지역이라는 교차로 놓기: '지방대학생/지방청년'에 관한 학술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제7권 4호, 53~90쪽.
- 김민선. 2014. 「제주지역 청년들의 불안, 자기관리 및 유통하는 삶」.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선기. 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 사회》, 17권, 207~248쪽.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권 2호, 27~52쪽.
- 김영순. 2010.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사회권을 통해 본 한국의 젠더체제」. 《사회보장연구》, 제26권 1호, 261~287쪽.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학회》, 제49권 1호, 197~212쪽.
- 달라 코스타, 마리아로사. 2017. 『집안의 노동자』. 김현지·이영주 옮김. 갈무리.
- 데이비스, 마이크. 2007. 『슬럼, 지구를 뒤덮다: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도시의 빈곤화』. 김정아 옮김. 돌베개.
- 라루, 아네트. 2012. 『불평등한 어린 시절』. 박상은 옮김. 에코리브르.
- 로즈, 질리언.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정현주 옮김. 한길사.
- 류도향. 2020. 「열린 가족과 진보적 장소감」. 《인문학연구》, 통권 120권, 215~240쪽.
- 매시, 도린. 2015.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맥도웰, 린다.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한울아카데미.
- 미첼, 돈. 2011. 『문화정치 문화전쟁: 비판적 문화지리학』. 류제현 외 2명 옮김. 살림.
- 바렛, 미셸. 2019. 『반사회적 가족』. 배은경·김혜경 옮김. 나뭇잎.

- 박경. 2020. 「지방 대학에 대한 낙인과 지방대생의 손상된 사회적 정체성」. 《사회과학연구》, 제59권 2호, 171~205쪽.
- 박경환. 2011. 「글로벌, 로컬, 스케일 -공간과 장소를 둘러싼 정치」. 《로컬리티 인문학》, 제5호, 47~85쪽.
- 박기남. 2011.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 제27권 1호, 1~39쪽.
- 박미선. 2017. 「한국주거불안계층의 특징과 양상: 1인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통권 제62호, 110~140쪽.
- 박소진. 2007. 「공간적 위계수사와 구별짓기: 강북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내러티브」. 《한국문화 인류학》, 제40권 1호, 43~81쪽.
- 박혜경. 2009. 「한국 중산층의 자녀교육 경쟁과 전업 어머니 정체성」. 《한국여성학》, 제25권 3호, 5~33쪽.
- 배은경. 2009.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층의 교차」. 《페미니즘 연구》, 제9권 2호, 39~82쪽.
- 배은경. 2015.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8권 1호, 7~41쪽.
- 백미록. 2015. 「주거 불안을 통해 본 2,30대 비혼 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 M구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진아. 2009. 「한국의 가족 변화: 가부장성의 지속과 변동」. 《현상과 인식》, 제33권 제1/2호, 204~224쪽.
- 벨런타인, 질. 2014.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박경환 옮김. 한울아카데미.
- 부르디외, 피에르. 2014. 『언어와 상징권력』. 김현경 옮김. 나남출판.
- 사센, 사스키아. 2016. 『사스키아 사센의 세계경제와 도시』. 남기범 외 2명 옮김. 푸른길.
- 서동진. 2009. 『자유 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 송제숙. 2016. 『혼자 살아가기: 비혼여성, 임대주택, 민주화 이후의 정동』. 황성원 옮김. 동녘.
-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81호, 35~60쪽.
- 실바. 제니퍼. 2020. 『커밍업쇼트』. 문현아 박준규 옮김. 리시올.
- 양승훈. 2019.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산업도시 거제, 빛과 그림자』. 오월의봄
- 양승훈. 2021. 「“제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동남권 지방대생의 일 경험과 구직」. 《경제와 사회》, 131호, 10~54쪽.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 원 세대』. 레디앙.
- 윤택립. 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 엡킨스, 리사·멀린다 쿠퍼·마르티즌 코닝스. 2021.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 김현정 옮김. 사이.
- 엄기호. 2010.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라 말인가: 20대와 함께 쓴 성장의 인문학』. 푸른숲.
- 오찬호.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개마고원.

- 이나영. 2014. 「한국사회의 중층적 젠더 불평등: 평등 신화와 불/변하는 여성들의 위치성」. 《한국여성학》, 제30권 4호, 1~45쪽.
- 이안나. 2014. 「지방 P대 여학생들의 ‘불안’경험과 자기통치의 대응전략」. 계명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상봉. 2018. 「한국사회 중앙-지방 불평등에 대한 문화적 접근」. 『로컬리티 인문학』. 103~142쪽.
- 이상철. 1995.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개방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신행철 외 지음. 『제주사회론』. 한울. 273~311쪽.
- 이재경·김보화. 2015. 「2, 30 대 비혼 여성의 결혼 전망과 의미: 학력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1권 4호, 41~85쪽.
- 임운서·안운정. 2017. 「서울에서 ‘지방출신 여대생’으로 살아가기: 서울살이에 대한 포토보이스 적용」. 《아시아여성연구》, 56권 2호, 205~256쪽.
- 장경섭·최선영. 2018. 「남성 노동생애와 가족생활주기의 착종」.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장경섭 지음. 집문당.
- 장경옥. 2020. 「지방대생의 목소리를 가장한 차별의 시선: 최종렬의 ‘북학왕의 사회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문사회21》, 제11권 3호, 1051~1066쪽.
- 장민지. 2015. 「젠더/무의식과 장소: 20~30대 여성청년 이주민들의 ‘집’의 의미」. 《미디어, 젠더 & 문화》, 30권 4호, 41~81쪽.
- 장민지. 2016. 「유동하는 세계에서 거주하는 삶: 여성청년 이주민의 장소 만들기」. 《문화연구》, 제4권 1호, 68~105쪽.
- 정민우. 2011. 『자기만의 방』. 이매진.
- 정민우·이나영. 2011.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성별화된 독립과 규범적 시공간성」. 《경제와 사회》, 89호, 105~145쪽.
- 정성조. 2019. 「청년 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123호, 12~39쪽.
- 정성훈. 2016. 「한국 지역불균등 발전의 해부: 영국과 이탈리아 부, 불균등, 지역발전 경험으로부터 교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9권 2호, 330~342쪽.
- 정현주. 2008.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6호, 894~913쪽.
- 정현주. 2016. 「젠더화된 도시담론 구축을 위한 시론적 검토: 서구 페미니스트 도시연구의 기여와 한계 및 한국 도시지리학의 과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9권 2호, 283~300쪽.
- 제주특별자치도. 2017. 『제주 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고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8. 『제주지역 여성 1인 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 지원방안 연구』. 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조성윤. 1995. 「제주도 도시개발의 기본구조」.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 71~104쪽.

- 조은. 2001. 「문화 자본과 계급 재생산: 계급별 일상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 60호, 166~205쪽.
- 조은. 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신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례연구」. 《경제와 사회》, 64호, 148~173쪽.
- 조은. 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 계급과 젠더의 경합」. 《한국여성학》, 제 24권 2호, 5~37쪽.
- 조은주. 2018. 「'가족' 이후에 관한 질문들」. 《황해문화》, 통권 98호, 109~125쪽.
- 조주은. 2004. 『현대가족이야기』. 이가서.
- 주형일. 2010. 「지방대에 대한 타자화 담론의 주관적 수용의 문제: 자기민속지학 방법의 적용」.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3호, 75~113쪽.
- 칸티요티, 테니즈. 2012. 「가부장제와 교섭하기」.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낸시 홈스트롬 엮음. 유강은 옮김. 메이데이.
- 콜린스, 패트리샤 힐. 2009. 『흑인 페미니즘 사상』. 주해연·박미선 옮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크레스웰, 팀. 2012. 『장소: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심승희 옮김. 시그마프레스.
- 틸리, 루이스 & 조안 W. 스콧. 2008. 『여성 노동 가족』. 후마니타스.
- 파레냐스, 라셀. 2009. 『세계화의 하인들』. 문현아 옮김. 여이연.
- 폴브레, 낸시. 2007. 『보이지 않는 가슴』. 윤자영 옮김. 또하나의 문화.
- 페데리치, 실비아. 2013. 『혁명의 영점』. 황성원 옮김. 갈무리.
- 프레이저, 낸시. 2017. 「의존의 계보학」. 『전진하는 페미니즘』. 임옥희 옮김. 돌베개.
- 하딩, 샌드라.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조주현 옮김. 남남출판.
- 한우리. 2017. 「'이생망' '헬조선' 여성청년들의 페미니스트 되기」. 《여/성이론》. 통권 37호, 58~78쪽.
- 흑실드, 앨리 러셀. 2013. 『나를 빌려 드립니다』. 류현 옮김. 이매진.
- Dalla Costa, Mariarosa. 1972. *The Power of Women and the Subversion of the Community*.
- Hooks, Bell. 1990. *homeplace a place of resistance*. Yearning
- Blatterer, Harry. 2010. *Coming of Age in Times of Uncertainty*. Berghahn Books.
- Elwood, Sarah A. 2000. "Lesbian Living Spaces: Multiple Meanings of Home." *Journal of Lesbian Studies*. Vol.4, No.1, pp.11~27.
- England, K. 1991. "Gender relations and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city." *Geoforum*, No.22, pp.135~147.
- Freeman, Carla. "Is Local: Global as Feminine: Masculine? Rethinking the Gender of Globalization." *Signs*, Vol.26, No.4, pp.1007~1037.
- Haraway, Donna. 1988.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Vol.14, No.3, pp.575~599.

- Young, I.M. 1990 *Throwing Like a Girl and Other Essays in Feminist Philosophy and Social Theor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Helen Austerberry and Sophie Watson. 1981. "A Woman's Place: A Feminist Approach to Housing in Britain." *Feminist Review*, No.8, pp.49~62.
- Mærsk, Eva, Annette Aagaard Thuesen & Tialda Haartsen. 2021. "Symbolic mobility capital to fight the social stigma of staying: how young adults re-imagine narratives of 'leaving' during higher education." *Journal of Youth Studies*, DOI: 10.1080/13676261.2021.1986624(검색일: 2021.12.15).
- Silva, Jennifer. 2012. "Constructing Adulthood in an Age of Uncertain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77, No.4, pp.505~522
- Thomassen. Jonne A. K. "The roles of family and friends in the immobility decisions of university graduates staying in a peripheral urban area in the Netherlands." *Population, Space and Place*, Vol.27, No.2, e2392.
- Urry, John. 1990. *The Tourist Gaze*. SAGE Publications.
- Shields, Rob. 1991. *Places on the margins*. Routledge.

기사 및 온라인 자료

- 시사인. 2017.7.13. "우리는 지방에 '남'지 않고 '살'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47>(검색일: 2021.12.28)
- 시사인. 2017.7.4. "지방청년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꿈꾼다는 것."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97>(검색일: 2021.12.28)
- 제민일보. 2021.5.26. "제주 인구유출 '청년·산남' 집중...지역격차 확대 우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8500>(검색일: 2021.12.28)
- 제민일보. 2021.3.20. "제주로 유입인구 느는데 청년 유출은 심화."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907>(검색일: 2021.12.28)
- 제주투데이. 2021.8.24. "[으쌔!제주노동] 제주 노동자 3명중 1명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까닭."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71>(검색일: 2021.12.28)
- 통계청, 2020.6.29.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보도자료)
-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2020. 「최근 4년간(2015~2018년) 제주 청년가구의 주택소유현황」
보도자료.